

광주일보 13기 리더스아카데미-송창영 광주대 교수 '극한 기후변화와 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강연

“재난 대하는 ‘못된 3자 화법’ 부터 끊어야”

‘남의 일’에 분노하는 대신
교훈을 제도에 담는 노력을
재난안전은 선제적 복지·행정
안전은 국가와 조직의 의무
위험으로부터 국민 지켜야



“재난은 분노의 대상만
이 아닙니다. 배우고 고치고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분노와 무지의
반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13기 광주
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2
학기 세번째 강연이 지난 30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렸다.

강단에 선 송창영(사진) 광주대학교 방재안전학과 교수(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는 ‘극한 기후변화와 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삼풍백화점·성수대교·세월호·이태원·오송·무안 사고 등 한국 현대사의 재난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 문화



송창영 광주대학교 방재안전학과 교수가 지난 30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극한 기후 변화와 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를 직설적으로 짚었다.

“우리나라는 재난이 터지면 온 사회가 분노로 끓지만 교훈을 제도에 담아내는 데는 서툴다”는 그의 첫마디에 강연장은 금세 숙연해졌다.

송 교수는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교육점검단장, 국가핵심기반 재난 관리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20여년간 국내 재난안전 정책과 교육·훈련 체계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을 받았으며 전국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강연과 연구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송 교수는 헌법 제34조 6항(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을 상기시키며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조직의 의무”라고 못 박았다. 그는 1999년 화성 씨랜드 화재 참사와 이후 유가족의 삶을 소개하며 “재난을 늘 ‘남의 일’로 여기게 만드는 ‘못된 3자 화법’을 끊어야 한다”며 “좋은 사회는 애도의 깊이만큼 학습의 깊이가 따라온다”고 강조했다.

재난 대응의 핵심 키워드로는 ‘선제성’을 꼽았다. 그는 “끓는 물 속 개구리(Boiling Frog) 비유를 들며 “우리를 위협하는 건 예상된 위험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변화”라며 “재난안전은 선제적 복지이자

선제적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강연 말미 송 교수는 광주일보의 리더스 원우들에게 건배하 하나를 남겼다. “앞으로는 ‘송무백열’(松無백열)로 건배해 봅시다. 누가 잘되면 박수치고 누가 힘들면 함께 비를 맞아주는 도시, 그제 안전한 도시 광주의 힘입니다.”

리더스아카데미는 추석 연휴를 마치고 공간 크리에이터 이지영, ‘인문학 하는 약사’ 송은호, 산티아고 스페인 전도사 박은영, 과학커뮤니케이터 이정모, 역사교육 전문가 황현필, 물리학자 김상욱, 미디어아트 전문가 김하경 등의 강연으로 2학기 일정을 이어간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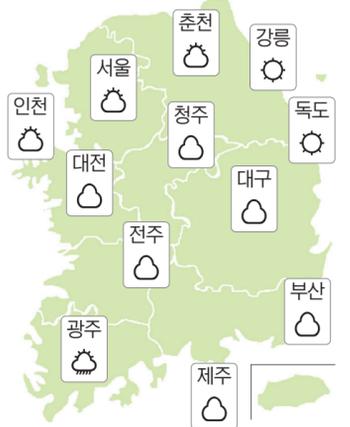
해돋이	06:28	달뜨기	15:31
해질름	18:15	달지기	00:37

구름 사이 보름달

2~3일 20~80mm 비가 내리고 연휴 내내 흐리겠다.

광주	한때비	17/25	보성	한때비	15/25
목포	가끔비	18/25	순천	한때비	17/27
여수	한때비	19/25	영광	한때비	17/26
나주	한때비	16/25	진도	가끔비	17/26
완도	한때비	18/27	전주	흐림	17/26
구례	흐림	17/25	군산	흐림	17/25
강진	한때비	16/26	남원	흐림	15/25
해남	한때비	16/26	흑산도	가끔비	20/25
장성	흐림	16/26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0.5~1.0	0.5~1.0
	면바다(북)	0.5~1.5	1.0~2.5
	면바다(남)	0.5~1.5	1.0~2.5
남해 서부	앞바다	0.5	0.5~1.0
	면바다(서)	0.5~1.5	1.0~2.5
	면바다(동)	0.5~1.0	1.0~2.5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4:08 15:09
여수	00:14 10:58	05:14 18:24

◇ 생활지수

미세먼지	보통
------	----

◇ 주간 날씨

3(금)	4(토)	5(일)
☀️	☁️	☁️
18/22	21/26	21/27
6(월)	7(화)	8(수)
☁️	☀️	☀️
21/27	20/25	20/26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사랑의열매에 성금 기탁



한국마사회 광주지사가 광주사랑의열매를 통해 계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3600만 원을 기탁했다.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제공>

코레일 광주역, 복지시설에 기부금 전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본부 광주역은 지난 30일 추석을 맞아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을 전달했다. <한국철도공사 제공>

빛고을건강타운 ‘한가위 나눔행사’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빛고을건강타운은 지난 30일과 1일 추석을 맞아 홀몸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을 살피고 온정의 선물꾸러미, 송편 등을 전달하는 ‘한가위 나눔행사’를 가졌다. <빛고을건강타운 제공>

화순전남대병원, 환아 가족에 명절 선물 나눔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추석을 맞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의 후원으로 마련된 김 세트를 병원 73병동 내 환아와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생활 게시판

알림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모집

▲시립산수도서관 생활문화화자리 한글 서예반 회원모집=한문서예·문인화·한글서예 동아리 ‘서사모’ 2005년도 정립, 매주 화요일 4~6시, 회비 무료 010-3636-6410.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이다. 48년생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하므로 이르다고 생각할 때에 시작하자. 60년생 다각적인 분석과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72년생 별일 없을 것이니 부담감을 버려도 된다. 84년생 모르고 있는 것이 백번 나을 뻔한 상황이다. 96년생 적시의 정지는 활력이 되어 줄 것이다. 행운의 숫자:24, 89

37년생 전방위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49년생 느슨해지면 관련하게 될 것이니 단단히 때어 두어야 한다. 61년생 진행하는 방식이 구체적이어야만 설득력을 갖는다. 73년생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묘안이 절실하다. 85년생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면 차치해도 된다. 97년생 상대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17, 80

38년생 자유로운 상태로 나누는 것이 무난하다. 50년생 속히 결정하지 못한다면 좋은 기회를 놓치기 쉽다. 62년생 기쁨 속에 함정이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74년생 준비해 두었던 것을 시의 적절하게 쓰게 된다. 86년생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98년생 방향과 방법의 선택이 길함을 좌우하리라. 행운의 숫자:26, 56

39년생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한다. 51년생 눈앞의 이익 때문에 숨겨진 화를 간과할 수도 있으니 참으로 조심해야겠다. 63년생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75년생 세부적으로 임해야만 무탈하리라. 87년생 변동하지 말고 관망하는 것이 낫다. 99년생 문제점이 보이니 잘 찾아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31, 84

10월 2일(음 8월 11일 甲辰)

辰

40년생 의문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는 기쁨이 있다. 52년생 모두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될 것이다. 64년생 시기의 선택이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76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대미문의 형태로 나타나리라. 88년생 쉽게 융합될 수도 있으나. 00년생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한 선견지명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36, 53

41년생 마음의 문을 열어 버린다면 만사가 길해진다. 53년생 양이 많아지면서 복잡한 환경들이 조성된다. 65년생 용도를 탈리한다면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77년생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될 것이니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89년생 좋은 소식이 있을 다리로 기다려 보자. 01년생 초심을 잃지 않아야만 유지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43, 92

42년생 고난이아말로 삶을 단련시키는 스승이리라. 54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응하는 것이 낫다. 66년생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볼 일이다. 78년생 과신은 손재를 부르니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90년생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니 빨리 정리 할수록 이롭다. 02년생 좌우기간에 걸려들면 복잡하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12, 81

43년생 쉽게 보고 덤벼들면 큰일 나게 되어 있다. 55년생 시세와 국량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야 할 때가 되었느니라. 67년생 기본 구조를 잘 이해한다면 차질이 없으리라. 79년생 자연스럽게 진행시키고자 하는 자세가 양호한 결과로 이끈다. 91년생 현황에 집착하지 말라. 03년생 반복한다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행운의 숫자:21, 98

10월 2일(음 8월 11일 甲辰)

申

44년생 방도를 세우지 않으면 궁지에 몰릴 수 있다. 56년생 행동의 문제로 되지 않을 것이니 기탄없이 진행하자. 68년생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또 속게 되는 우를 반복하지 말라. 80년생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진용을 정비할 때이다. 92년생 뒤따르는 이가 보이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 04년생 시선 집중을 받을 수도 있으나. 행운의 숫자:07, 55

45년생 지혜가 있다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으리라. 57년생 회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현명하다. 69년생 본수에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털고 일어셔야 한다. 81년생 검증되지 않은 단계이니 조심해야만 한다. 93년생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05년생 청천에 기뻐하지 말고 뼈아픈 충고에 귀 기울여라. 행운의 숫자:39, 83

46년생 요령을 보인다면 효과가 커질 것이다. 58년생 오랜 습관의 벽에 갇혀 있지 말고 과감히 뛰쳐 나와야만 한다. 70년생 유익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느니라. 82년생 검증되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신은 위험하다. 94년생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6년생 앞에서도 빠져들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13, 62

47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하자. 59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점검해야만 후환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71년생 오매불망으로 학습고대하던 반가운 소식이 있겠다. 83년생 사정을 헤아려서 무리하지 않게 처리 해야겠다. 95년생 어중간한 판국에 놓인다. 07년생 중심을 잡지 않으면 혼돈에 빠지리라. 행운의 숫자:04, 91

☎ 010-9790-8237